

참갈겨니

Korean dark chub

| *Zacco koreanus* (Oh et Hosoya, 2005)



분 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과 부산에서 삼척의 궁촌천에 이르는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한다. 북쪽의 하천에는 인위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 태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며 주둥이는 뾰족하며 입수염이 없다. 산란기의 수컷은 눈 주위와 뺨, 뒷지느러미에 추성이 발달하며 뒷지느러미가 길어진다. 체색은 등 쪽이 갈색을 띠며 배 쪽에는 은백색을 띤다. 산란기에는 배 아래쪽이 주황색을 띠고 옆면에는 노란색을 띤다. 몸의 옆면에는 가운데에 검은띠가 꼬리 끝까지 이어져 있고 눈의 동공 윗부분이 검은 것이 특징이다.



산란기 혼인색을 띠기 시작한 수컷



유영중인 참갈겨니 미성어



수조에서 유영중인 참갈겨니



1) 환경조성

참갈겨니의 사육환경은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고 유속이 조금 빠른 것이 좋다. 수조 내 참갈겨니의 크기가 10cm 이상 크면 몸의 움직임이 활발해 주변의 사람 움직임을, 충격, 소리에 놀라 수조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수조 덮개가 있어야 한다. 수초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뿌리가 그대로 뽑힐 수 있으며 수조의 크기가 3자 이상의 경우는 사육환경 조성을 잘 고려해 수초를 함께 사육할 수 있다.



정면모습

2) 먹이주기

참갈겨니는 주로 부상성질을 지닌 먹이를 선호하며 종류에 상관없이 먹는다. 바닥에 가라앉지 않는 알갱이 형태의 사료가 좋으며 먹성이 좋아 사료 먹는 양이 많지만 지나치게 주는 경우 배설물이 많이 발생하며 잔여 사료찌꺼기가 남을 경우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먹이주기 횟수는 3회/일 정도가 좋으며 조금씩 천천히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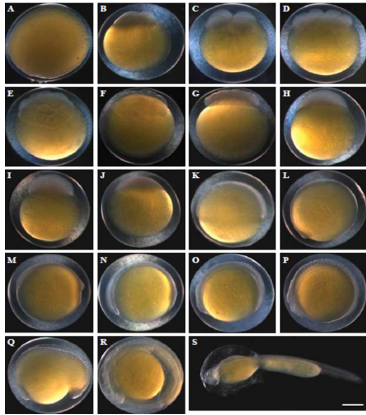
부상형 배합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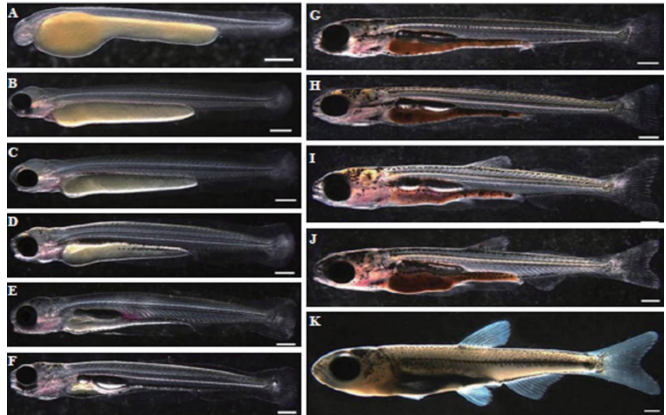
위천에 서식하는 참갈겨니(좌:암컷, 우:수컷)



참갈겨니의 측면모습



난발생 과정(Lee et al., 2013)



자치어 형태발달(Lee et al., 2013)

3) 번식방법

참갈겨니의 번식은 작은 자갈이 깔린 곳에 수컷 여러마리가 암컷을 따라다니면서 산란유도를 한다. 산란장소에서는 암컷이 바닥에 산란과 동시에 수컷이 방정을 하면서 수정하게 된다. 자연산란은 사육자가 직접 관찰하지 않으면 수정란 확보가 어려우며 인공수정 방법 또한 산란행동이 이루어질 때 시도하지 않으면 힘들어 수조 내에서 번식방법이 매우 어려운 종으로 볼 수 있다.



참갈겨니와 형태가 비슷한 갈겨니



참갈겨니의 체색은 황갈색을 띠고 등 쪽은 갈색, 배 쪽은 은백색을 띤다. 눈 동공의 윗부분은 검고 갈겨니는 이와 다르게 붉다. 참갈겨니는 가슴지느러미 앞 가장자리에 붉은 띠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이 있으며, 등지느러미의 색깔도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갈겨니는 가슴지느러미 앞 가장자리에 붉은 띠가 없어 차이를 보인다. 참갈겨니는 지리적 개체군 간의 등지느러미 색깔, 가슴지느러미의 붉은 띠 유무에 따라 3개의 형(HK, NS, NE)으로 구분된다(채 등 2019).